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 여수·강진·완도·신안·진도에 '섬 테마 관광지' 조성한다

역사·문화·자연생태 우수한 지역 체험·테마관광지 개발

108억원 투입...가족단위 소규모 관광객·섬 관광 인기 전망

전남도는 올해 여수, 강진, 완도, 신안, 진도 등 5개 시·군의 섬을 다양한 테마의 관광지로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을 체험, 테마 관광지로 개발하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33억원이 증액된 총 108억원을 투입한다.

여수는 '섬마을 너울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화양부터 적금 간 해상교량 개통으로 연륙된

조발·둔병·적금도 일원에 전망대와 광장,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구축한다.

강진은 '가우도 경관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체험형 관광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출렁다리와 모노레일을 설치한다. 이에 따른 관광객 유치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섬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기리고 역사교육을 고취할 수 있도록 완도 소안도에 '항일운동 테마공원'을, 신안 장산도에는 '역사

문화관'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선박이 오가는 길목에 섬 이름을 설치해 찾아가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드는 진도 '섬 관광 이미지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패턴의 변화로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객이 늘고 섬 관광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충남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섬 자원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각각의 섬 자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략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완도 소안도 항일운동 섬테마 공원

## 광주시, 올해부터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

내장형칩 3만원 5000마리 대상



광주시가 반려동물 사육인구 40만명 시대를 맞아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

견이 동물등록을 하고 동물병원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할 구청에서 반려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며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를 통해 동물등록을 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반려인은 전자태그를

전 소유자가 내장형칩 방식으로 동물등록 시 3만원을 반려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마리에 한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을 한 주민등록 주소지가 광주시인 반려인이다.

반려인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을 하고 동물병원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할 구청에서 반려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며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를 통해 동물등록을 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반려인은 전자태그를

목에 걸고 다니는 외장형과 마이크로칩을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목걸이 형태인 외장형은 쉽게 제거가 가능해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적으나 가격이 내장형보다 2배 이상 저렴해 많은 반려인이 장착하는 반면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의 경우 부작용이 있다는 일부 반려인의 잘못된 정보와 외장형보다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동물등록 비용은 1마리당 내장형은 4만~6만원, 외장형은 2만~3만원이다.

이런 이유로 동물등록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광주시 동물등록율은 47%(외장형 53%)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매년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오히려 늘게 돼 유기동물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시 등록비 일부를 반려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됐다.

기동취재본부

## 광주 학교폭력 물리적 유형 줄고 정서적 유형 늘어

언어폭력·집단따돌림·사이버 괴롭힘 순 전년비 학교폭력 피해 호소 학생은 소폭↓

광주지역에서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은 낮아진 반면 언어폭력·집단따돌림·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96명(0.9%)으로 전년 1895명(1.6%) 대비 0.7%p 감소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자는 초등학교 1.9%, 중학교 0.5%, 고등학교 0.1%로 전년 대비 학생 피해 응답률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국 평균과 동일한 0.9%로 나타났다.

유형별 피해 비중은 언어폭력 35.2%,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26.2%, 사이버괴롭힘 11.5% 신체폭행 7.0%, 스토킹 6.1%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년 대비 신체폭행, 금품갈취 등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은 낮아진 반면 언어폭력·집단따돌림·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은 증가했다.

가해자 유형은 학교의 같은 반 학생 45.9%, 학교의 같은 학년 학생 29.4%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의 경우 교실 안 32%, 복도 10.7%, 사이버공간 9.3% 순이었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 35.4%, 하교 이후 시간 19.2%, 점심시간 10.6% 순이었다.

시교육청은 실태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학교현장의 특성을 고려,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교육과정(교과·창체) 연계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관계회복·자치 중심 예방교육 강화,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를 통한 학급·학년 중심 예방교육 내실화, 교육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목표로 한 위(Wee)프로젝트를 운영해 심리·정서안정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피해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언어폭력(35.2%), 집단따돌림과 괴롭힘(26.2%) 감소를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학생인권교육, 인성교육 관련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전국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 초등학교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에 따른 어울림·어깨동무학교 지원 확대, 순회 전문상담사 운영을 통한 개인·집단 상담프로그램 강화, 초등학교 학년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자료 제작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조인호기자

## 농협전남본부, 설 명절 앞두고 한우가격 동향·방역실태 점검

무안 일로읍 가축시장 방문

농협전남지역본부부는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목포무안신안축협이 운영하는 무안 일로읍 가축시장을 찾아 한우가격 동향과 가축시장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한우 출하 능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일로읍가축시장은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식당과 휴게실을 폐쇄하고, 방문자 발열체크와 경매시장 내 시설에 대한 수시 소독 등을 실시했다.

1일과 6일에 열리는 이 곳은 지난해 1만

8500여두(거래일 평균 약 260두)가 거래된 전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축시장이다.

박서홍 본부장은 "철저한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안전한 가축시장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토요일은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